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기념관

2020
태일
50

서울특별시

전태일의 친구들

— 2020 전태일노동구술기록 1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에서 구술기록에 참여하고 있는 전태일 친구들
(왼쪽부터 이승철, 김영문, 이수호, 최종인, 임현재)

기억은 추모와 계승의 원동력이다

전태일기념관이 문을 연 지 1년, 기념관 본연의 기본 사업에 착수하며 먼저 시작한 사업이 노동구술기록이다.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 조직한 ‘바보회’와 ‘삼동회’에 참여했고, 분신항거할 때 곁을 지키고 있었으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라는 유언에 따라 이소선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아오신 전태일의 친구 네 분이 첫 번째 대상이었다.

분신항거한 지도 50년이 지나 네 분 친구들도 일흔을 넘겨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구술을 시작하며 서로가 놀랄 정도로 기억이 생생한 데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 당시의 정경을 묘사하는 데는 허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네 분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형식이라 역사적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느낌과 의미도 보는 각도에 따라 각자가 다르면서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좋았다.

구술을 진행하며 우선 구술자인 친구들의 친밀도가 점점 높아져 갔다. 각자 전태일을 마음에 품고 따로 혹은 같이 살아온 긴 세월, 오해도 풀리고 동지애와 우정이 점점 깊어가는 모습은 구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다. 또한 각자 자기의 시선으로 기억했던 전태일의 모습이 기억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보름달같이 크고 밝은 모습으로 둥글게 떠오르고 있었다. 집단 구술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했다.

구술 작업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였지만 구술자들과 제작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세 달 동안 최선을 다했다. 동시에 영상기록 편집과 구술자료집 제작도 진행되었다.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 기술에 따라 전체 6부에 걸쳐 진행된 구술은 김대현 작가가 이야기 구성을 맡았고, 허철녕 감독이 이끄는 제작팀이 촬영을 했다. 도서출판 걷는사람(대표 김성규)은 녹취 자료로 자료집을 제작했다. 전체 기획과 진행은 전태일기념관의 유현아 팀장과 양윤미 학예사가 수고했고, 구술 진행 사회는 부족한 내가 맡았다.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그 결과물 중 하나인 구술자료집을 세상에 내놓는 동시에 우리 기념관에 아카이브 자료로 보관하려 한다. 이 자료는 전태일 관련 친구들의 구술 자료의 정본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 전태일 그리고 그 친구들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리라 믿는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나 예술가들이 근거와 영감을 얻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되리라 확신한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항거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많은 기념 사업과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 노동구술기록사업도 그중 하나이다. 전태일의 지난 50년을 통해 100년을 내다보고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2020년 8월 26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관장 이수호

사회 이수호 전태일기념관 관장
전태일의 친구 김영문, 이승철, 임현재, 최종인
장소 전태일기념관 2층 올림터

차례

인사말	4
1부 어린 시절(인터뷰 1회차)	8
2부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인터뷰 2회차)	86
3부 바보회의 조직(인터뷰 3회차)	162
4부 전태일 사상(인터뷰 4회차)	236
5부 1970년 11월 13일(인터뷰 5회차)	308
6부 청계피복노조의 결성(인터뷰 6회차)	384
참고 용어	478

1부

어린 시절

인터뷰 1회차

2020년 2월 10일(월) 14:00~17:30

사회자 전태일기념관장 이수호

각자 전태일을 마음에 품고 따로 혹은 같이 살아온 긴 세월, 오해도 풀리고
동지애와 우정이 점점 깊어가는 모습은 구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였다.



1. 인연

이수호 2020 전태일노동구술기록은 전태일의 친구들이나 가족 등 전태일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들을 아카이브, 즉 기록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 언론에서 개별적으로 전후를 자르고 어느 부분만 따서 이상한 내용들도 많은데 이번에는 친구들, 가족 등의 전태일과 관련된 구술기록을 전태일기념관에서 제대로 진행하고 이를 정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전태일만 산 게 아니라 수많은 전태일들도 있는데 기존의 인터뷰들은 전태일 중심으로 진행되었죠. 평전에도 나오지만 ‘모두 속의 나, 또는 나를 아는 나, 나를 모르는 나, 모든 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친구들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전태일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회차당 두 시간 정도를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씩 길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이 2월이니 앞으로 4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는 인터뷰를 위해 몽땅 비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은 전문작가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태일평전』, 그 흐름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태일평전』이 전부 5부로 되어 있습니다. 평전의 처음 부분은 어린 시절인데, 전태일의 어린 시절 상황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의 어린 시절 얘기와 함께 주로 물음을 통해 회상하거나 기억해서 얘기할 텐데요. 어떤 정답이 없죠. 자기가 살아온 자신의 삶, 그게 정답입니다. 그걸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꾸 흐름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대답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뒤에 편집을 다시 하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재편집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영상 편집을 해놓고 기본적으로는 교육 자료로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요. 또 결과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록하고 편집한 자료도 필요하면 책으

로 출간할 계획까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평전의 흐름에 따라 맥락을 잡고자 질문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질문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길게 하면 졸리기도 하니까 약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한데, 그 또한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미비한 게 있으면 그다음에 얘기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다가 다른 분 얘기가 궁금하면 중간에 말씀하셔도 좋고, 또는 살짝 끼어들어서 본인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 정도는 가능한데 다른 분이 얘기할 때 아예 끊고 들어가서 본인 얘기를 하는 건 좀 지양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제가 편 의상 사회를 보면서 중간중간 개입을 하고요. 작가님도 흐름에 따라서 미비한 부분은 뒤에 설명이나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긴장 안 하고 있죠? 긴장 푸시고.



최종인 긴장이 되네요.

이수호 긴장이 되죠. 전태일, 그동안 전태일 친구로 살아온 삶을 간간히 들었습니다만, 때론 자랑스럽고 보람되기도 하지만 때론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 테고요. 지금까지 돌아가시기 50년 전에 맺어진 인연으로 그런 삶을 살아오셨죠. 현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참 어딜 가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는 게 역시 전태일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전태일 열사와 그 유지를 잇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들려오고 있으며, 얼마 전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천2백 명의 이름들처럼 우리 노동자의 삶, 노동환경은 여전히 위협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응하여 전태일기념관은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분신항거로 자신을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의 사상과 행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단추로 전태일 열사와 함께 삼동친목회에 참여한 친구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될 친구들께서는 단순히 삶의 어느 시기를 전태일과 함께 보냈던 동년배 집단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전태일 열사의 사상과 열정, 고달팠던 과거와 미래의 이상을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것은 전태일 열사의 수기에 기록된 ‘그들만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또는 ‘나를 아는 모든 나, 나를 모르는 모든 나’라고 표현했던 문구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전태일 열사의 삶의 일부를 듣고 기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

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친구분들의 말씀을 기록하는 방식은 전태일 기록의 정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조영래 변호사가 저술한 『전태일평전』을, 사회를 맡은 이수호와 친구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 나누어 읽고 해당 부분에 대한 평전의 기록을 통해서 친구들의 회고를 듣는 방식입니다. 이는 친구들의 삶의 기록과 함께 전태일 열사의 행적·사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혹여 평전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 또는 오해되어왔던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충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평전의 1부에 해당하는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읽고 전태일 열사의 출생부터 평화시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정황에 대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의 자기소개를 들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 지금은 성함과 간략한 근황, 그리고 당시 전태일과의 관계 정도만 짚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발언 순서는 일단 처음이니 가장 편한 가나다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김영문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문 네. 김영문입니다. 저는 평화시장에 빨리 온 편이라 그 친구를 조금 일찍 만나게 됐고, 가까이하면서 바보회라는 친목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68년도, 69년도 시기인데 바보회를 얼마간 하고 난 뒤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삼동친목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68년도 무렵에는 그 시장 인근이 삼동이라 되어 있지 않았습다. 그래서 삼동회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바보회를 했는데요. 당시 시장 선배들에게 노동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건네니까 “야 바보 같은 짓거리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수호 김영문 선생님께서는 바보회에도 참여하셨고, 삼동회에도 참여하셨는데요. 바보회 관련 내용도 뒤에 나올 예정이니 소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영문 그래서 저는 삼동친목회까지,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호 김영문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선생님입니다.

이승철 예. 이승철입니다. 1949년 4월 8일에 전라남도 나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서울 평화시장에 들어온 건 68년도 봄에 들어왔고요. 70년 9월 19일날 11시경에 전태일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수호 아주, 참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시네요.

이승철 그 이후에 청계피복노동조합에서 10년 노동운동을 했고,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의류부속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호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현재 선생님.

임현재 저는 전라남도 고흥, 뒷산에 올라가면 나로도가 내려다보이는 아주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먹을거리는 별로 없어서 고생을 했고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쯤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해에는 소키워주는 머슴으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께서 옛날 시골 면적으로 너 마지기, 환산하면

800평 정도. 어떤 기록에는 천몇백 평으로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군생활을 마치고 와서 농사를 짓다가 그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쟁기를 던져버리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덕에 중학교를 갈 뻔하다가 못 가고 3년째 되는 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족은 먼저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 소개로 평화시장에 들어갔다가 한 번 쓰라린 해고를 당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들어간 게 1970년 봄이었습니다. 그 봄 어느 날, 전태일이 멋진 베레모를 쓰고 저희 공장에 와서 악수와 인사를 청하면서 알게 됐던 게 전태일과의 인연이고 그 만남이 제 평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수호 지금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임현재 노조 해산 당시 반대하는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와서 보니 어린 딸들 윤정이, 윤선이 그때 윤선이는 돌이었는데 개네들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상 노동운동과 인연을 끝내고 사업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보험모집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수호 벌써 연세가 일흔이 넘어선 상황에서도 여전히 보험일을 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살아가시는 임현재 선생님의 말씀 들었고요. 최종인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종인 예. 최종인입니다. 전태일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대담할 수 있다는 데에 감사하고, 또 기념관이 설립되기까지 이수호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자작일촌입니다. 기억에 남

는 것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마당에 덕석을 깔아놓고 제사를 지낸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종손이라 제사가 열세 번이 있어요. 그때 집안사람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했어요. 어릴 때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또 우리 어머니가 초사흘날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며 기도드리는 걸 봤어요. 그게 자식들 잘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나와서 취직을 했습니다. 영암에서 목포로 의류판매점에 판매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사장들이 너무 좋아서 야간학교를 잠깐 다녔고요. 거기에서 한 3년 있다가 서울 올라와서 평화시장에 들어왔어요. 평화시장에 들어온 것이 1968년도 같습니다. 이승철보다 내가 1년 정도 좀 빠르고요.

그런데 평화시장에 들어와 보니까 ‘아! 여기는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시간도 14시간, 15시간 일하는 지역인가 보다’ 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신기호 씨라는 재단계의 원로가 있는데 그 신기호 씨를 만났어요.

이수호 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또 나오니까요.

최종인 신기호 씨가 소개를 해서 전태일을 만났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 오늘까지 50년 동안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수호 인연도 중요하고 또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우리 친구분들, 저희들로서는 참 고맙고 큰 힘이 됩니다. 전태일재단도 그렇고 전태일기념관도 그렇고, 전태일의 친구들이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시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힘을 주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들을 하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편집할 수 있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2. 어린 시절

이수호 우선 네 분 선생님 소개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평전의 내용과 함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평전은, 전태일의 출생과 해당 시기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이 되고 있죠. 전태일은 1948년 전상수 선생과 이소선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변기였죠. 또 전쟁으로 인한 궁핍과 극심한 이념,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어린 시절은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궁핍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전태일 열사의 친구들이고21 다들 연배가 비슷하시니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일부 말씀도 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출생 당시의 이야기와 가족관계 그리고 당시 거주지의 환경 등 어린 시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을 주시면서 염두에 두실 것은 부모님들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또 농업이나 장사 등 그 당시 마을주민들의 생계유지 수단과 그것으로 가족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입니다. 전태일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죠. 아버지가 봉제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시기적인 문제로 제대로 일을 못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나 빈곤한 이웃을 대하는 것이 마을공

동체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 선생님들의 삶은 어떠셨는지, 어린 시절 전태일을 생각하면서 본인들의 삶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최종인 선생님 어린 시절을 들겠습니다.

최종인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칠남매 중 여섯째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특별한 기억이라는 게, 어머니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1년 내내 머리를 감고 초사흘을 지내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게 자식들 잘되라는 기도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집안이 종손 집안인데 동네에 자작일촌, 최씨들만 살아요. 제사가 있으면 아침부터 마당에 덕석을 깔아놓고 최씨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 잔치를 봐온 것이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어릴 때는 농사지었어요. 그리고 논밭에 가서 또는 물고랑에 가서 수영하고 고기를 잡으면서 뛰어놀았던 그런 특별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수호 지금 같은 최씨들만 모여서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특별히 어려운 집안이 있으면 같이 도와준다거나?

최종인 동네에 최씨들만 사니까 아주 어려운 집안들도 있죠. 마을공동체라 함은, 최씨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조금씩 도와준다는 건 있겠죠,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고요. 뭐 다 농사지어서 겨우 생계유지하는 정도였죠.

이수호 대부분 다 가난했는데.

최종인 네. 대부분 다 가난합니다.

이수호 선생님도 가난하셨고. 그런데 아까 저 장사를 하셨다고?

최종인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수호 아니고.

임현재 본인(최종인)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목포에 취직을 했어요.

이수호 아! 졸업하고? 초등학교는 졸업하신 거죠?

최종인 예. 초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이수호 목포?

최종인 취직은 영암에서 목포로, 의류 판매사업입니다. 의류 판매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그 집 사장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거기서 야간학교를 다니고 싶다 하니까 보내주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의류 감각을 거기에서 많이 느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같은 의류 계통의 제품생산 공장에 취직을 했죠. 그런 과정을 어렸을 때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류사업에 대한 감각이 남달라 나중에 노조를 그만두고 제가 의류사업을 했죠. 조금 했는데 한 10년 했습니다. 그런 감각이 남보다 좀 뛰어나서 의류사업도 성공적으로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수호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최종인 네.

이수호 중학교도 못 가고 취직을 해서.

최종인 예예.

이수호 그때부터 장사를 배운 거죠?

최종인 예. 장사를 배웠죠.

이수호 장사를 배우고 야간에?

최종인 예. 야간에 학교를 잠깐 다니고요.

이수호 뒤에 공부하는 부분은 다시 나오지만. 공부는 그게 다네? (웃음)

최종인 네.

이수호 (웃음) 지금은 뭐 사장이십니다.

최종인 (웃음) 그래서 의류사업에 (웃음) 대한 것이나 디자인을 제가 잘 압니다.

이수호 아! 디자인.

최종인 디자인, 의류 감각이 남보다 조금 더 감각이 있었어요.

이수호 어린 시절에 배운 게 도움이 됐고.

최종인 어린 시절 그때 배웠던 게.

임현재 뭐든지 잘하고 노조 활동도 잘했어요. (웃음)

이수호 자! 우리 임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임현재 저는 나중에 철들고서 보니까 아버지가 늘 안 계세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6·25 끝나고 그때 군에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형제 중 막둥이라서 제 사촌형제들하고 아버지가 나이들이 비슷비슷해요. 큰 사촌형님보다 아버지가 오히려 한 살 아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큰아들보다 나중에, 큰아들이 장남을 낳은 다음에 막내아들을 낳으신 거지.

둘이 같이 한꺼번에 군대를 가셨더라고요. 전쟁에 군병력이 모자라니까 보낸 것 같아. 7년 동안 사병으로 근무를 하셨죠. 내가 학교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군대생활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아버님 휴가 나오시면 커다란 군화를 내가 끌고 다녔던 기억도 나요.

아버님이 군대 가시기 전에 당신 노력으로 머슴살이해서 마련한 농토가 밭 너 마지기, 밭은 80평이 한 마지기니까 한 160평 됐을 거고요. 논은 200평이 한 마지기니까 한 80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산골 논이어서 비가 잘 안 오면 다 타버리고 못 해먹는 실정이었어요.

아버지는 군생활을 할 때이니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살았죠. 그런데 그때 송아지를 한 마리 키워서 주면 다시 송아지 한 마리를 주

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송아지 키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또 나는 육남매에 장남이니까 3년마다 동생이 한 명씩 태어나면 개네들 업고 어머니한테 젓 먹이러 가야 했어요. 또 송아지도 키워야 되고, 뿔나무도 해야 되고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1인이 한 4억, 5억을 했어요.

이수호 초등학교 때부터?

임현재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지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한 뒤인지 하기 전이었는지 가물가물하긴 하는데 그 지계를 가져오셔서가지고 나한테 주니 어린 마음에 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한테 맞는 지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공부시킬 계획은 아예 없으셨죠. (웃음) ‘너는 농사 열심히 지어라’라는, 그래서 지계를 만들어줬던 거지요. 요즘에는 양수리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공동텃밭을 경작하는데 제가 농사를 아주 잘 지어요.

이수호 (웃음) 그때부터, 그 시절에 배운 거군요.

임현재 종인이는 장사를 배워서 장사를 잘하고. 난 농사를 잘 짓는 소질이 있는데 직업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웃음) 생각을 해봤죠.

이수호 (웃음) 어린 시절의 배움과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렇게 꾸준히 성장하죠.

임현재 공동으로 벼 베기하는데, 벼를 잠깐 베는 걸 보면 정말 사람들이 못 베요. 나는 툭!툭! 아주 선수처럼 잘 베죠.

이수호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은 주로 그렇게 살았던 거네요.

임현재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을 집에서 뿔나무하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지내다가 이거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할 즈음 그때 아버지가 제대를 하셨죠.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돈을 벌려고 했죠. 이 친구는 점원으로 일하러 갔는데 나는 또 농사짓는 곳에 머슴으로 갔죠.

이수호 머슴으로?

임현재 머슴으로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여름에 논이 말라버리니까 그거 패대기치고 서울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전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다른 아이들은 다 모여서 원서를 냈어요. 나는 못 냈는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인을 통해서 “중학교 갈 준비해서 중학교로 가거라”고, 그래서 원서를 사왔더니 며칠 있다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 하겠으니까 그걸 포기해라” 하더군요. (웃음)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기 전에 큰집의 큰형님한테 찾아갔어요. “큰형님 저 학비만 좀 보태주면 나중에 제가 꼭 갚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큰형님이 아주 명언을 하셨는데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간 네 마음보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너희 부모님의 마음이 훨씬 아프다는 걸 생각을 안 해봤냐?”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수호 굉장히 어렵네. (웃음)

임현재 제가 그 말을 아주 사무치게 잘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1년을 채워줘야 했죠.

이수호 머슴살이?

임현재 네. 그냥 서울로 따라가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또 약속이 소중하다고 머슴살이를 다 채웠죠.

이수호 1년을?

임현재 예. 지금 서대문구청 앞에 보면 개천가에 새로운 길을 나서 하천이 땅이 돼버린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난한 꼬방동네가 생긴 거예요. 1년을 채우고 나중에 서울로 왔더니 아버지가 거기 방 한 칸에서 우리 육남매하고 당신네 두 부부랑 여덟식구가 살더라고요. 나도 와가지고 거기에서 살았죠.

그 꼬방동네는 정말 『전태일평전』에 나오는 남산동, 이런 데랑 똑같은 곳이었어요. 비 오면 비 새고, 겨울에는 추워서 마냥 오돌돌돌 떨면서 연탄을 몇 번씩 갈아야 했죠. 수도는 공동수도, 화장실도 공동화장실인 그런 데에 살았죠. 물도 돈 얼마씩 주고 한 지게 사다 먹고요. 지금은 모래내인 그 밑에 난지도,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쓰레기 더미가 엄청났었는데 부모님이 거기 가서 고철 주워가지고 가족들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실정이었죠.

나는 취직을 해야 하는데 취직을 못 하고 있으니 고향분들이 고물상에서 장사를 배우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고물상에 잡부로 취직을 했어요. 김영울이라고 내 친구가 평화시장에 있었어요. 고물상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이 친구가 “일자리 있으니까 나와라”고 해서 나왔더니 재단보조를 시켜주더라고요.

이수호 그게 몇 살쯤?

임현재 68년인지 67년인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최종인도 만나고 이승철도 만났죠. 그래서 다 같이 친구가 됐죠.

이수호 그럼 결국 중학교는?

임현재 그러니까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몇 개월 만에 원서를 냈는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학교 못 다닌다”라는 말에 포기를 했어야 했고요. (웃음) 뒷마을 사는 애들은 훨씬 가난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개네들이 떼로, 우리 마을 앞으로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수호 (웃음) 하여간 참, 그 당시 다 비슷한 삶이었죠. 저는 해당자가 아닙니다만, 저도 전태일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친구하자고, 농담 삼아. (웃음)

저도 그 비슷한 경험으로, 어릴 때 농촌에 있다가 도회지 변두리로 오면서 겪었던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어린 시절의 궁핍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남에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임현재 전태일 사후, 우리가 노조를 만들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이력서를 써요. 이력서 쓸 때 나는 중졸로 썼죠.

이수호 중학교 입학도 못 했으면서? (웃음)

임현재 중졸이라고 거짓말로 썼고 또 어떨 때는 고등학교 중퇴 이렇게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이름도 잘 모르니까, 내가 고물상에 취직해 있을 때 거기 아들이 다니던 학교가 균명중학교인가 균명

고등학교인가 했는데 거짓말로 그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아!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하는 자신을 얻게 된 때가 언제 있었냐고 하면,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국노총 같은 데 교육을 갔을 때 노조 간부가 아니라 거기 일했던 연구직원 중에 황한식 동지가 “나는 황가다. 그리고 난 양반이 아니다. 그래서 쌍놈이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걸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바로잡았죠. 그렇지만 실제 별로 그런 얘기를 할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양수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대요. 어떤 분이 와서 나보고 아주 간곡하게 동대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동대표 정도는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다고 했더니 이력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별규정을 다 쓰도록 돼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게 이제 뽕록이 나겠죠.

그리고 전태일외와 삼동회 할 때 우리가 몰려다니면서 저녁에 회의하러 청계천을 건너가다 저녁장사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끄는 수레하고 나하고 부딪쳤는데 그분이 넘어지면서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고소하는 바람에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았어요.

이수호 전과자가 된 거죠?

임현재 그 기간이 한 40일인가 될 건데 그동안에 전태일이 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현장에 없었죠. 그런 아픈 사연을 겪으면서 일단 전과가 하나 붙었죠. 그 뒤에 강제로 노조 해산당하고 아프리(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농성 사건으로 해서 전과가 두 개에, 또 두산타워에서 분양일인가 하다가 나중에 무슨 전체 리베이트 관계로 엮여서 또 한 번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별이 세 개더라고요. (웃음)

이수호 이력서에. (웃음)

임현재 (웃음) 예. 그래서 뭐 (웃음) 동대표로 뽑아줄려나 했지만 쓰기 싫어서 안 하겠다고 하고 말았죠. (웃음)

이수호 동대표를 못 하겠다고?

임현재 네. 못 하겠다, 이력서 쓰기 싫어서 그만뒀습니다. (웃음)

이수호 우리 승철 형도 비슷한 어린 시절 경험을 전에 들은 바 있는데 어린 시절 얘기 한 번 해봐요.

이승철 나는 49년 4월달에 태어났대요. 우리 어머니가 전태일 어머니보다 키가 더 작아요.

이수호 그랬어요?

이승철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체중이 23kg이라고 했으니까 젊어서 정말 어린애처럼 조그마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고 죽게 생겨서 난리가 났다나 봐요. 그 바람에 어머니가 나를 볼 수도 없고, 젖을 줄 수 없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젖 먹이고, 쌀뜨물 끓여 먹이고 해서 컸다고 들었어요. 제가 둘 무렵 저의 누나 2명이 세 살 터울로 있었는데 결핵에 걸려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 입을 맞추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입을 맞추어서 저도 결핵임파에 걸렸어요. 그때는 6·25전쟁 중이고 병원도 없었던 시절이었지요. 결핵임파로 목 여기저기가 굵으니까 한의원을 가야 했는데, 4km를 가야 했나 봅니다. 누나 2명은 죽고, 어머니는 나를

업고 갈 수 없는 체질의 몸이고 해서, 형이 열한 살인데 하나 있는 동생마저 죽게 생겼다고 학교를 안 가고 나를 업고 다녔다고 해요. 한의원에 갔는데 칼로 찢어서 고름만 짜내는 바람에 지금도 목에 흉터가 많아요. 형님은 나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열두 살에 서울로 올라가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부모님에게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게을렀어요. 아주 무능해. 나 태어날 무렵에는 큰 집에서 살았다고 한 것 같고, 다섯 살 때는 어느 소방대장집 조그만 옆방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은 없는데 별걸 다 해요. 못하는 게 없긴 한데, 그런데 늘 끙끙대고 힘든 일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장사한다고 고집해서 형님이 돈을 벌어 줄곤 보내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 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남의 집 셋방살이를 했어요. 나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란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학교는 1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는 건너 뛰어서 다시 2학년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조금 잘했나 봐요. 매년 우등상을 탔어. 우리 아버지 동네 자랑은 나였지. 친구들 몇 명이 있었는데 다 못 타고 나만 타오니까.

그땐 번호를 키순으로 정하다 보니 62명 중에 12번인가 그랬는데 내가 작았어. 그런데 웃은 서울에 있는 형님이 항상 보내줬죠.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 교복도 보내오죠. 내가 교복을 깨끗이 입고 학교에 가면 아무도 우리 집 못사는 거에 대해 말을 안 했어요. 우리 동네 친구들은 다 논 있고 집 있고 그랬거든요.

내가 점심시간마다 운동장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나 봐. 나중에 커서 누가 그러더라고. “민섭이 너는 그때 계속 운동장만 보고 있었던 순했던 애다” 이렇게요. 그런데 5학년 2학기 때, 전교어린이회장을 뽑는데 6학년 애들은 다 중학교 간다고 공부해서 제가 전교어린이회장이 됐어요. 그전에도 내가 어리니까 “나 반장 안 한다”고 계속 거절했어. 그때는 나보다 나

이를 세 살, 네 살 더 먹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5학년인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회장도 했어요.

6학년 올라가서도 반장을 했어요. 그때 젊은 선생이 처음 부임해 왔는데 그 선생이 공부 잘하는 애들 5명을 뽑아서 산수 시험문제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5명이 모여 시험문제를 만들어서 프린트까지 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즈음 구정에 서울에서 형님이 내려와서는 나에게 중학교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골에서 셋방살이 하는데 돈을 보내오면 우리 아버지가 장사하다 다 까먹고 그래도 중학교를 간다고 하니 그 선생이 나를 특별히 챙겼죠. 그때는 체력도 상당히 돼야 했거든. 턱걸이를 9개 이상 또 100m를 12초 이상인가 뛰어야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주 동강학교라고 그러는데 당시는 광주서중이 전남에서 제일 최고였던 것 같아. 거기를 가는 조건으로, 안 되면 북중이라도 가는 걸로 선생이 계획을 잡고 나한테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추석에 형님이 와서는 “동생을 중학교에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저의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우리 아들 중학교 못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너무 낙담을 하고 몇 명 가르치던 일을 포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친구들이 중학교 가는 걸 너무 부러워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형님에게 연락했나 봐요. 그때 ‘통신강의록’이 있었어요. 형님이 3학년분 전체를 사서 보내주면서 “이걸로 공부 해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공부했죠. 내가 1년 동안에 몽땅 봤어요. 그러다가 3월인가 4월인가 아버지가 또 “너 서당에 좀 다녀 봐라”고 해서 서당에 갔어요. 한 3~4개월 다녔나? 명심보감까지 떼었죠. 그때 배운 한자가 노동조합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지. 근로기준법 같은 책이 다 한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열여섯 살인가 다섯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다음 년에 농사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겨울에 도지라는 걸 쥐.

이수호 그렇지. 미리 받는 거.

이승철 그때 다섯 마지기를 짓는데 쌀이나 벼로 한 가마인가 줘. 그걸 찌면 두 말 정도 나왔던 것 같애. 그걸 미리 먹고 그다음 여름에 농사를 지어주는 거지. 내가 느낀 거는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남의 일을 하러 다녔지.

이수호 일하러 다니고?

이승철 호미질하고 다니면서 별고. 여름에 농사짓고 할 때는 저녁마다 혼자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하는 집에 가서 밥 먹고. 혼자 있었으니까.

이수호 얻어먹는 거죠?

이승철 그렇게 살았고요. 열다섯 살인가 됐을 때, 서울에 가서 취직해야겠다 마음먹고 형님한테 부탁해서 서울로 왔어요. 그때 기사식당에서 택시 차 안을 청소하는 일을 한 3개월 하다가 손가락이 많이 붓고 아파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 열여섯 살 때인가 다시 서울로 또 왔어. 광장시장, 원단 파는데 거기서 콩비지백반 하는 식당에 취직을 해서 배달을 다녔어요. 거기도 몇 달 있다가 또 많이 아프니까 내려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는 객지생활은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일을 하라며 도지 받은 곳마다 막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수호 농사일?

이승철 예. 막 엄청 받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 후 명절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서울서 인쇄소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서울서 두 번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형님네한테도 다시 부탁을 못 해. 그러다가 67년도에 올라와서 인쇄소에 취직을 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활자를 휘발유로 닦는 거야, 그러니까 짝잖아요. 그거 배운다고. 그해 67년도에 최종인이 서울에 왔어요.

이수호 그전에도 서로?

최종인 예. 제 아버지가 한량이에요. 그러니까 없이 살아도 있는 것을, 그냥 몽땅 본인의 놀기 위한 것에 써버리는 사람, 한량이에요. 우리 동네가 재 아버지의 처갓집이야.

이수호 아하! 그래서.

최종인 우리 고모네가 처갓집이야. 우리 고모네 집이, 고모네 딸이 거기로.

이승철 내가 이야기할게. (웃음)

최종인 그건 간단하게. 한량이란 이야기고.

이수호 한 분씩.

이승철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종인이하고 놀았어요. 쉽게 말하면 진외가 쪽이야. 진외가.

이수호 진외가?

이승철 내 외할머니의 친정 쪽. 하여튼 그래서 아는 사이인데요. 우리 형님네가 서교동, 그러니까 청과동 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 왔어. 그 형님도 거기 와 있었고. 우리 이종형님 한 분도 거기 와 있었고. 그리고 종인이도 그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게 됐지. 나는 인쇄소 다니고, 종인이는 평화시장 다니고.

어느 날 평화시장 이야기하다가, 인쇄소는 10년을 일해서 기술자가 돼도 1만 2천 원인가밖에 못 받는데 재단사는 한 3년만 해도 1만 5천 원 이상을 받더라고. 아이고, 그리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68년도에 평화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최종인이 밑으로 갔어. 아까 이야기했던 김영울이라고, 그 친구는 재단사고. 그래서 임현재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평화시장에 들어갔지요.

이수호 그러니까 나주 부근의 가난한 동네에서 농사짓다가, 형님이 먼저 서울에 올라가서 많이 도와주고 했다는 건데, 가족으로는 몇 째예요?

이승철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딱 둘이에요. 열두 살 차이가 나요. 중간에 누나들 둘이 죽었으니까.

이수호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아들 형제네. 어쨌든 동생이니 형이 돌봐주고 그걸로 겨우 유지를 하다가 도움이 끊기니까 학교도 못 가고 취직 몇 번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낸 거네요. (웃음) 그럼 김영문 선생님께서는?

김영문 저도 사실은 이 친구하고 고향이 같아요.

이수호 아, 그래요? 나주?

김영문 전라남도 나주 금천이라고 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배가 유명하죠. 나주 배가 유명한데 우리 동네에서 거의 40퍼센트가 나옵니다. 광주 가다 보면 배박물관이 있는 데가 우리 동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못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선동이 막내입니다. 아버님이 선일곱에 저를 낳고, 어머니하고는 아홉 살 차이였어요. 마흔여덟이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셨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자체는 잘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씨들, 그다음에 임씨들, 다들 너무 잘살았는데 우린 너무 못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러 다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가서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우리 형제들이 육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위로 누나들이 계셨고, 형님은 저보다 열 살 위셨죠. 그러다 보니 너무 힘이 들고, 잘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이수호 어릴 때죠? 초등학교 시절.

김영문 그렇죠. 사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밖엔 없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중학교 시험을 봤죠. 그때 시험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금천 바로 옆에 있는 원고, 원예중고등학교, 거기에 시험을 봤어요.

저희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아마 초등학교도 안 다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누나가 저보다 스물다섯 살 위인 데다 제가 태어날 때 이미 두 누나는 결혼을 했더라고요.

이수호 태어날 때?

김영문 그렇죠. 저희 조카가 나보다 네 살이 위고, 둘째 누나네도 거의 나하고 비슷한 조카가 있으니까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사실은 땅이 없었어요. 누구는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보니까 논 딱 200평, 한 마지기예요. 그것도 뭐 좋지도 않았어요. 밭이 한 300평,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거로는 먹고살 수 있는 가정 형편은 아니었다고 봐요. 거기는 평야잖아요, 나주평야. 그러다 보니까 농사일을 했죠. 동네가 워낙 부촌이니 아버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셨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아버지가 겨울방학 때 덕석을 짍니다. 덕석을 짜서 가져다가 파시는 거예요. 방도 좁고 그렇다 보니 그러면 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덕석을 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일찍 일어나서 하게 됐죠. 그 상황에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또 아버지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야!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이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부잣집들 옆에 살다 보니, 사실 바로 뒤가 다른 사람의 야산이에요. 우리는 힘든 형편이어서 나무를 남의 산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은 남의 산 소나무 밑에서 갈퀴로 긁어 그다음에 낫으로 베는데 그러다 주인한테 걸렸어요. 하! 주인한테 걸렸는데 나무를 다 뺏어가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야. 할 수 없이 가야지. 그게 초등학교 후배네 집인데, 잘살았어요. 가서 훈계만 듣고 나무는 다 뺏은 채 빈 망만 주더라고. 그게 마음이 정말 굉장히 서글픈 거야. 이야! 미치겠는 거지, 사람 마음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돈을 버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 누나가 목포에 사시다가 어찌어찌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누나 때문에 서울을 오게 됐는데, 뭐 연도는 정확히 생각나진 않지만 제 생각에 한 66년 정도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네요.

매형이 흥은동에서 사는데 그 밑에 보면 경기초자라고 유리공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링거 병이고 뭐고 다 만드니까. 판피린 병까지도 만들었어요. 올라오자마자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시다바리를 한 1년 정도 가까이 하는데 그게 또 잘 안되더라고. 유리 녹이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못 하면 일을 못 해요. 그러니 해고를 당하더라고. 해고를 당해서 할 일이 없는 채로 어영부영하고 있었지.

동네에 나이가 나랑 같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해고를 당하니까 그 친구가 “너 평화시장에 가볼래?”라는 그 말에 평화시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작업복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또 매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으니까 그랬으니 인쇄소로 가라. 인쇄소에 가면 한문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염천교 쪽에 매형 친구가 인쇄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평화시장을 뜨고 그쪽으로 가서 4개월 정도 됐을 무렵에는 활자도 사러 다니고 종이도 사러 다니고 심부름으로 유한양행도 들어가 봤지요. 유한양행과 거래를 하면 들어가기도 했으니.

인쇄소 생활을 그렇게 쪽 4개월 정도 하는데 거기는 남자들만 있으니 사실 삭막하잖아. 그 어린 나이에. (웃음) 평화시장에는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평화시장으로 놀러 다닌 거예요. 평화시장이란 곳은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들도 있고, 등등 많잖아요.

이수호 미싱사?

김영문 자꾸 삭막한 데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스럽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평화시장으로 오게 됩니다. 아마, 그게 66~67년쯤 그 사이에 다시 와서 보조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때 태일도 2층에 있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호 그건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보면 공통점이랄까, 어린 시절은 다 너무너무 힘들었네요.

최종인 그런데 시골에서 있다 보면요. 몇몇 잘사는 집안 애들과 같은 초등학교 멤버가 있어요. 그 애들은 중학교도 다니고 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애들은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요. 성공을 못 해요. 그런데 어렵게 사는 우리들은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그 자리가 우리 직업이고 영원히 여기에서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그 자리를 천직으로 알고 버티다 보니까 다 성공한 예들이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강인한 정신으로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태일 정신도 부르짖고. 전태일도 어렵게 살았다 보니 전태일이 하자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의리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임현재 아니 사회자가 말씀하실라고 그러는데. (웃음)

이수호 아니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웃음)

임현재 예예, 그러면 당신이 말을 끊어야 되는 거야. (웃음)

이수호 아니, (웃음) 하여간 지금 하신 말씀 그것도 맞는 말씀이

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렇게 올라왔다가 실패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하고 다시 고향에 쫓겨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하죠.

어떻든 시골, 어려운 농촌에서 참 어렵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다들 학력은 초등학교, 그 이상 없죠? (웃음)

모두 (웃음)

이승철 문턱만 들어갔다 나온 거죠.

이수호 다들 중학교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됐네요. 그런데 전태일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했으니까. 어떻든 그 비슷한 때에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자연스럽게 모여 전태일을 만났네요. 서울에 올라올 때가 대체로 고등학교 갈 그 나이에 와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든 어린 시절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저 두 분은 만이죠?

임현재 애(최종인)는 만이 아니고.

최종인 저는 여섯째. 칠남매 중 여섯째.

임현재 나는 맏이고.

이수호 여기(이승철)는 막내고 저기(김영문)도 막내고, 어쨌든 다들 부모님들의 보호는 제대로 다 받지 못했고. 또 마음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겠지만 동네에서 어려운 애들을 구체적으로 돌봐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거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 잘 헤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건데요.

3. 고향을 떠나며

이수호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도 한데요. 평전에 보면 전태일 일가는 전상수 씨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향 대구를 떠나 부산으로 쫓겨갑니다. 1954년,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못사니까 거기 가면 좀 나올까 하면서 가족 전체가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 올라왔지만 서울에서도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걸식이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노숙하는 등 비참한 삶을 유지하는데요. 이는 전태일 일가의 특유한 비극이 아니라 그 당시 해체된 마을공동체로 인해서 도시로 일 자리를 찾아 떠나는 전국적인 이촌향도, 시골을 떠나 도시로 향해 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 형들도 도시로 나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고향을 떠나오시게 된 계기, 서울에서 정착 초기에 어떻게 버티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네 분 다 고향이 호남이죠?

모두 네, 호남.

이수호 특히 호남지역은 인구 유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당시 호남 지역의 이주 상황은 대체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변을 포함해서 알고 계신 것들.

가족 전체가 떠돌아다니거나 쫓겨 다니기도 하고, 또 가족에서 이탈해서 돈도 벌고 잘살기 위해 서울에 왔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나 들었던 생각

에 대해 말씀 주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고향을 떠날 때 서울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나 생각. 친구들 가운데는 서울이나 도시로 떠나지 않고 시골에 그냥 남아 있기도 했을 텐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쫓겨나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잘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

덧붙이면 서울에 와서 판자촌이나 뒷골목 등 아까 여덟 식구가 방 한 칸에 살고 했던 어려움들. 그 당시 서울에 처음 와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나 생각들을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임현재 선생님?

임현재 서울과 고향. 제 고향은 지형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때는 운동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땀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는데요. 형들이나 선배들 따라서 다녔는데, 그런데 땀나무를 하도 많이 베어내서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온 산이 민둥산이어서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험한 곳에 가야 풀이라도 주워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다도해가 다 보이는 거죠. 아지랑이가 아롱아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 생각이 서울에 와서도 계속 나기는 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소년 가장이었잖아요? 시하층층 동생들 업고 다녀야 했었고, 코도 뚫지 않은 고집 센 송아지를 끌고 다녔는데 송아지가 남의 밭을 다 망가뜨려 놓아요. 그 뒤로는 누구네 곡식이 망가졌으면 자연스럽게 “저거 현재네 소다”라는 지목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고요.

그리고 학교 또는 골목에서 친구들이나 형들하고 조금의 다툼이라도 생기면 서러웠죠. 그 친구들은 다 형들이 있었던 말이에요. 나는 내가 제일 형이니까 편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웃음) 그러니까 늘 서러움 받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외할머니네 집이 같은 동네였는데 먹을 것이 제대로 없으니까 하도 배고프면 외할머니한테 가요. 외할머니는 고구마라도 하나 꺼내서 주려고 하고 거기 숙모님은 왔다고 눈 흘기고. 그런 찬밥 대우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서울 간다고 그러니까 동네 친구 엄마들이 “야, 현재 서울 간다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서울 가면 너 그 맛있는 고구마 못 먹어서 어떡하냐” (웃음) 이런 말들을 했죠.

우리는 봄, 이때쯤 되면 양식이 다 떨어져요. 고구마도 없고. 그런데 친구네 집에는 고구마가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 친구가 “야, 이따 나무하러 같이 가게 너 우리 집으로 와”라고 말해요.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친구네 어머니도 너무너무 후덕하신 분이어서 내가 가면 큰 양푼에다 고구마 삶은 것 갖다 놓고 “야, 현재랑 먹어라” 하세요. 그럼 배를 채우고 땀나무를 하러 가기도 했던 곳이었지만. 그런 추억 외에는 별로, 고향은 나한테 서러운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꼬방동네에서 부모님이 어렵게 살고 있네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요. 리어카 가지고 공사 현장으로 가서 날품팔이도 했고. 부모님 따라서 고철 주우러도 가고. 그때는 더군다나 도로 공사 현장에 가면 6·25 때 묻었던 탱크라든지 이런 철들이 묻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노다지를 캐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친구 소개로 평화시장에 들어오게 돼요. 그때 평화시장 월급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그보다 더 적은 돈으로 며칠 일하다 비 오면 못 하고, 일 없으면 못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한 달에 정기적으로 얼마씩 고정 수입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놓였죠. 또 정해진 시간만 일한다는 게 우선 좋았고, 동료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나는 평화시장에 처음 들어가서 일할 때가 사실 굉장히 행복했죠.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태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평화시장 너무 좋은데.” (웃음) 일요일도 안 쉬고, 팬이 없어서 공기가 나쁘고. 우리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꺼내놓고 조금 있으면 거뭇게 먼지가 내려앉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였는데, 그전에는 그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했으니까 그걸 문제로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시다들이 그만두면 월급을 받기 위해 가게 앞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어요. 사장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울고 있다가 다시 와야 되고요. “이런 현실이 너무 잘못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면 이런 걸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태일의 얘기에 공감을 해서 정의감이 발동돼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됐지요.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봤을 때 정말 철딱서니 없는 못된 놈이죠. 돈 벌어야 우리 가족이 다 먹고사는데 무슨 놈의 정의고 뭐고.

어찌 되었든 전태일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했고 나름 정의감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다 떠난 뒤에도 이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이 바닥에서 지금까지 살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생겼죠.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신문도 보며 또 각계 지도하시는 분들도 만났죠.

이수호 변해가는 거죠.

임현재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수호 그 이야긴 뒤에 다시 하고요. 어쨌든 시골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도 여전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하면 오히려 거기?

임현재 평화시장은 천국이었죠. 오히려. (웃음)

이수호 오히려, 다들 비슷하신가요?

최종인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웃음) 시골에 살았지만 먹는 것은 후하게 먹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가 조금 후한 부모예요. 덕을 많이 베푸는 사람, 없어도 베풀어요. 1년에 열세 번의 제사가 있으니깐 한 달에 한 번씩은 자기 먹고 싶은 맛있는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건 당시 부모님 의식이 깨치지 못했던 거지요.

일만 열심히 하면 남의 집에 가도 그 집에서 먹을 것은 잘 줬죠. 내가 워낙 착한 애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웃음)

이수호 옛날에 착했어요?

최종인 네. 착했어요. 무지하게 착했어요. (웃음)

이승철 지금도 착해. (웃음)

최종인 사장이 너무 착하다고, 너는 잘될 거라고 노상 말했죠. 야간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니 공부하라면서 야간학교도 가도록 해주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평화시장에 오니까 다른 거예요. 평화시장 일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여기는 왜 일요일에 안 노는가? 그리고 일을 왜 열 시간씩 늦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저런 여러 생각이 있었지만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태일이가 내가 일하는 공장에 나타나서 그때 알게 된 거죠. 또 어찌 된 게 나는 재단보조로 들어갔는데 남보다 빨리 얼렁뚱땅 재

단사가 됐어요.

이수호 눈치가 아주 빨랐나?

최종인 신기호란 선배가 재단사로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 보조였어요. 그 양반이 태일이를 소개했어요. 그때는 가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가다를 놓고 “네가 재단을 해버려라. 겨울철을 보내라. 이거 가지고 보낼 수 있으니깐.” 내가 응용을 잘하거든요. 원단을 적게 먹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맡다 보니 사장이 그걸 보고 “네가 재단사하고 올 겨울은 그냥 보내라” 이렇게 해서 남보다 얼렁뚱땅한 재단사예요. 배운 거 하나도 없이 재단사가 빨리 됐어요.

그리고 태일이가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날 태일이가 이곳의 근로 조건에 대한 이러저러한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렇구나’ 했죠. 또 태일이가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깨우치게 됐지요.

이수호 시골에서 살던 상황과 서울로 옮기면서 상황은 큰 변화는 없었네요.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 잘 적응을 하는 편?

최종인 적응을 아무 데나 잘합니다. (웃음)

임현재 종인이는 좀 부자였지. (웃음)

이승철 부자였어.

이수호 상대적으로.

이승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화시장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웃음) 여섯 번을 더 이야기해야 하는데 한 번에 다 말해버리듯이 진행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분도 이사장님 이야기하면 좀 잘 들어요. (웃음) 구분해서 말해야 하는데 막 여기 간섭하고 저기 간섭하고. (웃음)

이수호 왔다 갔다 하니까. (웃음) 다시 그래서 서울로 옮기고 그 과정의 이야기나 더 들죠.

이승철 제가 이야기 조금 할까요?

이수호 네.

이승철 그때 외갓집, 종인이네 가면 집도 좋고 부자였어요. 어머니 친정인 외갓집에 가면 항상 종인이 어머니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싸서 어머니에게 줬어.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도 그제야 더 보태주셨지. 그렇게 받아온 걸로 살았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정말 못살았어요. 우리 보릿고개 이야기하잖아요. 3월 되면 진짜 먹을거리가 없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친구네 집에서 고구마에다가 동치미 하나랑 얻어먹으면 그렇게 배부르고 맛있었던 기억도 나고. 나중에는 보리농사짓고 계절을 나잖아요. 그러면 들에 다니면서 이삭 주워 와서 그거 먹고도 살고. 벼 베고 나서도 이삭 줍고, 고구마 캐러 다니면서 고구마 줍고. 그 정도로 어렵게 살았었거든.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당시 나하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에 면장 아들도 있었어. 참 술 만드는 데를 뭐라고 그랬어?

이수호 도가! 술도가.

이승철 그 집 아들, 지서장 아들, 이런 애들이 아주 엄청나게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 딱 죽어서 누구하고도 말을 안 했어. 졸업하고 동창회를 한다는데 돈 백 원이 없어서 못 갔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지요.

5학년 때부터 제가 책을 참 많이 봤어요. 형님이 육군정훈학교 군수과에 있었는데 군인들 위로한다고 보내온 책들 중에 우리가 볼 만한 책을 엄청 갖다줬어요. 소공자 소공녀 등 거의 다 봤어요.

이수호 빼들렸구나. (웃음)

이승철 빼들렸지. (웃음) 동생 준다고. 제가 서당을 다니면서 한문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인쇄소로 갔긴 했지만, 저는 평화시장에 들어왔을 때 보고 느꼈던 것은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이 자리의 사람들이 정의감이 있었다 어쩐다 하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을 배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보낸다는 것. 그 생각이 마음에 철저히 있었죠. 남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건 잘 몰랐어요.

하여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서울에서 살다 내려가니까 앞서 말했던 면장 아들 등 이런 애들이 다시 시골에 내려와서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경비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자주 고구마 얻어먹었던 친한 친구는 서울에 와서 자전거 기술을 배웠어요. 개가 기술자가 돼서 돈을 아주 괜찮게 벌었어요. 그래서 시골에다 자전거 가게를 차렸었거든요. 내가 자전거를 그때 배우게 됐지요. 근데 차차 오토바이가 나오면서 자전거가 사양길로 들었잖아. 보니까 개가 나중에는 아주 어렵게 살더라고. 서울에 와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수호 서울에 올라와서도 힘들었지만 시골에 살 때 너무 힘들었

기 때문에 그보다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지요?

이승철 네. 4학년쯤 돼요. 그때 겨울이면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은 뭘 하나면요. 일할 게 없으니까 산에서 물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사방 공사도 하고, 또 사방 1~2m 깊이 저수지 파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파면 내가 거들고요. 그러면 쌀 2리터 한 되를 줬나 했어요.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평화시장에 가서는 정말... 서울에 와서 형님 밑에 있는데 쌀밥 먹고 그러니까 (웃음) 너무 행복한 거죠. (웃음)

임현재 쉬었다 하시죠.

이수호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연히 호남 출신들이긴 하지만. 유독 호남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못살아서 서울로 많이 왔고, 인구 유동도 많았죠. 혹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느껴 보았거나, 또 우리 동네는 왜 못살까 등.

김영문 그런 거라고 봐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전라도는 무슨 도둑놈, 깡패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수호 다른 사람들이?

김영문 예. 그렇죠. “아니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내가 서울말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고. 호남말을 쓰면 괜히 별로 안 좋게 보는 시선이었죠.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당시 보면, 5·16 끝나고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호남 쪽에는 뭔가를 안 해줬고, 경상도 쪽에는 포항제철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지역

은 돈도 없고 젊은 친구들이 별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거나 때로는 부산으로 가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 동창들 중에도 어떤 친구들은 부산으로 가기도 하고, 서울로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죠.

임현재 그때는 우리가 철이 없어 잘 몰랐던 건데 나중에 보면 박정희의 정책 자체가 중화학공업 육성이다 해서 정책을 바꾼 거잖아요. 저곡가 정책. 그래서 호남지방에 그 넓은 땅을 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 곡물을 들여와서 곡가를 억제하니 곡식값 없고, 농사지어 봐야 거지 되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도시로, 도시로 떠날 수밖에요.

이수호 그런 현상이었다?

김영문 옛날에는 평야 아닙니까. 호남에서 제일 큰 평야가 김제평야, 나주평야. 땅도 많고, 그때 당시에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쪽으로 와서 뭘 좀 해볼까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최종인 옛날에 경상도 사람들이 머슴으로 많이 와서 일을 했대요. 거기서 설움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간 일로 얘기하면서 전라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과장되게 욕하고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던가 봐요.

김영문 그리고 먼저 올라온 전라도 선배들이 거의 싸움꾼들이었 다니니까요.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안 좋았었나 봐요. 서울 와서 그런 이야기 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임현재 싸움은 뭐 전라도 놈들만 하나. (웃음)

이승철 왜 전라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요. 그 당시 서울에는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순 전라도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처남 이야기로 군대에도 호남 사람들이 휴가 간다고 그러면 어디서든 뭘 훔쳐도 훔쳐 간다는 거야. 건빵이고 담배고 훔쳐서 시골집에 가져다준다고. 그 정도로 어렵게 살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서 마구 몰아넣은 거지. 전라도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다 놓으면 그들도 그래요. (웃음)

김영문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서울 말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고.

최종인 제가 전라도와 경상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앞으로 얘기해야 될 일이지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삼동친목회를 할 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열댓 명에서 스무 명이 삼동친목회 하는데 전태일이가 대구예요. 3분의 2는 전라도 애들이예요. 그 나머지가 다른 지역 애들이고.

전태일이 가고 난 뒤에 우리가 무보수로 1년간 일했잖아요. 한 푼도 없이 어머니 집에서 차비만 받았죠. 청계피복노조 할 때 남아 있는 전라도 애들이 아홉 명이야, 경상도 출신 전태일이 죽었는데.

내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전라도 사람들은 의리가 강하다, 그리고 정의가 있다. 전라도, 여기 친구들은 사실 정의파들이예요. 뭐라 해도 정의다 하면 들어대죠. 그래서 우리의 정의가 없었으면 전태일의 정의가 과연 그렇게 살아났을까.

평화시장의 업주들이 이북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저 전라도 깡패들이 노조를 전부 꺾치고 깡패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

는지 몰라요. 그 설움을 노조 하면서도 받았고요. 깡패 소리 안 들으려고 20대 나이에 공무원들이 입는 하얀 남방을 입고서 사용주들한테 점잖게 “예, 예”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전라도 이야기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라도는 정의가 있고 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수호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뒷부분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 휴식)

4. 상처 입은 동심

이수호 다시 또 시작을 해봅시다. 어떠세요? 해보니까 힘드시죠? 재미는 있나요?

이승철 재미는 없어요. (웃음)

이수호 그래도 어린 시절을 다시 한 번 회상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임현재 감추고 싶은 것, 아니 꼭 감춘다기보다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치부까지 다 드러내게 되니까 한편으론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호 지금은 감추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아주 객관화시켜

보면 그게 다 보람이고, 어쩌면 자랑이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나? 제대로 학교도 다니고 했던 사람이 지금 더 어렵고 실패해서 다 고향 내려가 빌빌거리고 있다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약이 된 좋은 경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일흔이 넘었는데, 뭘.

최종인 칠십이 넘으니까 부끄러운 건 없죠. (웃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우리와는 관계없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거밖에 없죠.

이수호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힘든 삶을 이어가던 전태일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고작 열두 살의 나이로 노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태일이 노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또래 아이들이 신문을 파는 것을 목격하게 된 계기인데요.

이 시기는 전태일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아동, 청소년 노동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평전을 보면 아동청소년들의 신문팔이, 구두닦이, 삼발이 위탁판매, 뒤밀이 등 여러 형태로 불가피하게 했던 노동 현실들이 어른 못지않게 아주 가혹하게 실시되던 그런 때였는데요.

더구나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실에서 가정이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지처럼 돌아다니거나 합숙소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노동자들이 많았죠. 또 그 내부에 각자 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권력처럼 생각하는 또래 집단의 폭행이나 갈취 등이 많았는데요.

이런 수직적인 착취구조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선생님들의 어린 시절

의 사회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체험을 하셨거나 또는 보고 들은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함께, 서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던 아동청소년 노동의 실태 등에 대해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구요.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기도 했는데요. 가출, 그리고 애를 버리는 거죠. 전태일이 순덕이를 어쩔 수 없이 보호소에 맡겼던 것처럼요. 또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의지할 곳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생활과 당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합숙소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아동청소년 사이의 위계, 권력관계. 어른들에게 착취당하고 맞은 이런 실태 등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요?

김영문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66년도, 67년도쯤 들어온 평화시장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계천이 동대문까지 막혀 있고 그다음은 전부 그냥 개천으로 흘렀습니다. 그때는 양쪽으로 마장동까지 판자촌이었어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또 재건대라고 해서 종이를 줍는 친구들도 다 거기서 살았어요.

또, 예를 들어 지금 동대문에 이스턴호텔 뒤쪽으로 보면 전차 기점이 있었습니다. 성수동, 뚝섬으로 가는 그게 있었는데 그 옆으로 전부 윤락가였습니다. 노벨극장 있는 데까지.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저렇게 어려운 곳도 있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때로는 평화시장에 있던 애들도,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윤락가로 빠진 애들도 있었어요.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갈 일이 있어서 우연히 노벨극장 쪽으로 지나가다가 그런 애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잠깐 서서 이야기를 했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랬는데 피하더라고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건달 애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전태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힘든 경험을 하고,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이 더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수호 예를 들었습니다만 윤락가, 그 당시엔 참 많았잖아요? 역 앞에는 거의 다 있었고. 종로3가에는 더 대규모로.

김영문 그래도 종로3가는 약간 더 좋은 곳입니다. (웃음) 제가 말한 곳은 더 어려운 곳이었고.

이수호 어른들이 시켜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호객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많았잖아요. ‘팸프’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당시 열악한 상황 속으로 아이들이 내몰리면서, 이걸 노동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혹시 기억하시거나?

이승철 저도 하여튼 내 코가 석자였으니까. 주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몰랐었고요. 다만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딸들이 많은 집들은 그 딸들을 남에게 많이 줬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누구네 딸을 어디에 줬다고. 양녀로 보냈는지 식모살이로 보냈는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고요. 특히 남자들 중에도 머슴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다들 도시로 갔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김홍신이 쓴 『인간시장』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사람을 파멸로 낼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랬었죠.

이수호 어린 시절과 서울로 오는 과정 등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태일이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온갖 걸 다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임현재 평전을 통해 알게 됐지만 태일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고 어머니가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결손가정 자녀들처럼 본인이 구두담이 통을 메고 생계를 위해서 전선에 나서는 경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에서 배는 고팠지만 그런 힘든 일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서울에 왔을 때에도 부모님이 먼저 올라오셨고 나는 나중에 합류해서 가족이라는 테두리, 제도 안에 흡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은 겪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네 자체가 워낙 꼬방동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많이 봤죠. 동네에서 주름 잡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를 그 패거리에 끼워 넣을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채는 가정이 있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그러니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한 번 우리 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어요. 그때는 복지위원이 있었으니 노동조합도 상당히 자리를 잡았을 때지. 저녁에 갔는데 어머니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따 아프시면 다시 연락하세요” 그리고 나왔는데 낮에 아버님이 어머니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모셔다 놓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엄마 아파가지고 여기에 데리고 왔다”고요. 그래서 복지위원에 가서 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아 그런 비싼 데로 모시면 어떡해. 빨리 가서 여기로 모시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모시고 왔죠. 이 복지위원 원장이 전남 고흥에서 의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어머니 아픈 증세만 가지고도 병명을 정확하게 짚어낸 거

예요. “간에 고름이 찼다, 간농양이다”라고 하면서 수술을 시켜야 한다며 서강대 앞에 자기 친구 병원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원장이 “여기서 수술 받을 수 없고, 돈도 많이 들 테니까 시립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해서 그리로 모시고 가는 중에 우리 어머니쯤이야 그냥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거기로 또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수간호사라는 사람이 보더니 “여기서 치료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시립병원으로 모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고집 부릴 때가 아니구나’ 하고 시립병원으로 모셨죠. 시립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난 후 병원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돈을 가져와라. 그래야 치료를 더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장한테 “돈이 전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돈이 없으면 극빈자 증명을 가져오든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빈자니까 ‘그럼 내가 동사무소에서 떼오면 되겠네’ 하고 갔는데 극빈자라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결국 그것도 못 땀지.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지. 동네 사람들의 전체 연판장을 제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네에 깡패 두목이었던 그 형에게 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짝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이 나한테 손을 뻗치지 않았던 것은 내가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 안에 있었고, 또 그들이 깡패 생활을 하면서도 의리는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우리 동네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바닥까지는 안 떨어졌던 게 참 다행이 아니었나. 반대 상황으로 우리는 떨어진 거잖아요.

이수호 어떻든, 평전에 따르면 전태일은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 드디어 노동의 현장, 구체적으로 임금을 받는 곳으로 가면서 상황

이 변하게 되는데요. 말씀대로 다들 태일이 같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태일이하고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겠죠. 혹시 태일이가 자신의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진 않았나요?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시다도 힘들지만, 공장 바깥에서 뒤밀이하고, 구두 닦고, 또 삼발이도 팔고 하는 다른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 혹은 관심은 없었는지?

최종인 저희들은 태일이에 대한 가정사, 개인사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태일이는 친구 간에 잘 지내고 정을 나누는 관계로만 들었어요. 또 우리 친목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방향 등을 제시해 주었지요.

제가 목포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 평화시장에 취직을 했는데 서울에서 하숙을 했어요. 이승철 형수 집에서 먼 친척이라고 받아준 거죠. 청파동인데 2층이고 다락방이 있었어요. 청파동에도 빈민촌이 있었거든요. 다락방에서 하숙을 하고 잠을 잤어요. 서울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활하는가 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다락에서도 자고, 라고 생각했죠. 또 한방에서 여러 명이 자기도 했어요. 다락에서도 세 명인가가 잤어요.

그렇게 몇 개월 생활하다 공장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했는데, 겨울에는 공장에 쌓아놓은 잠바 만드는 솜 속에 들어가서 잤어요. ‘서울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했지. 그런데 잘사는 사람들, 말하자면 ‘부자들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살겠지, 나 같은 종속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했지.

이승철 지금 그 이야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솜 하면 깨끗하고 하얀 줄 알거든. 그런데 사실 거기의 솜이라는 건 담요라든지 헛것을 다 털어낸 것들이예요. 그러니까 하얗

지가 않아요. 그걸로 우리도 잠바를 누벼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애들 것에 들어가는 건 스펀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솜이라고 하면 깨끗한 솜 안에서 자는 거로 생각할 것 같아서. (웃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야.

김영문 맞아. 그때는 섬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수호 그러니까 청소년을 포함해서 여학생들도 비슷하네요. 노동자가 되는 과정이 하나의 시대적인 특성이 있듯이 말이죠.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어 시골에서 특히 여학생들은 그냥 어디 가서 밥이나 먹여주면 입 하나 덜기 위해서 무조건 보내는 거고. 가서 차장을 하든, 식모를 하든 또 시다를 하든, 뭘 하든 가서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시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죠. 혹시 그런 상황이 집단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합숙소처럼 집단 생활하면서 못된 짓 하는 경우도 있었고. 평전에도 살짝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체험 같은 것은 별로 없으셨는지?

김영문 저는 여기 친구분들보다는 태일이를 좀 빨리 본 게 맞습니다. 빨리 만나서 바보회를 먼저 만들었는데 태일이가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했어요. 시다들이나 나이 어린 애들의 상황을 이야기는 하죠. 그런데 자기나 자기 고생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평화시장 2층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점심때 잠깐 옥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한다든지. 서로 대화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애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애들도 있었고.

이수호 열세 살 정도.

김영문 초등학교 나온 애들. 나도 그때 당시 중학교 나온 시다 아이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애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과정을 보며 태일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호 예. 그래서 평전에 보면 전태일도 어린 시절, 삶의 절박한 위기를 많이 당했죠. 그런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위법, 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겠다 싶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몇 번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삶의 막바지에 이르는 일까지 생기니까요.

전태일도 가출을 했다가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중에 차비가 없어서 검표원한테 걸리면 혼이 나거나 난리 날까 봐 걱정을 하는데, 검표원이 “빨리 나가”라고 어깨를 치니까 ‘아! 나는 도대체 잡혀갈 자격도 없는 놈이다’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또 영천인가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야기 엄마가 떨어뜨리고 간 돈을 주워서 ‘이걸 내가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내가 못 찾아주면 나는 이제 도둑놈이다’라고 자괴감을 가지는 유사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표할 때 어떤 할머니가 치마 속으로 감춰주고 그걸 또 태일이가 고맙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시대에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당할 수 있는 경험들. 그 비슷한 경험들이 있겠죠.

이 자리에는 본격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전태일은 가출을 여러 번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관심도 없었고. 가출이나 방황, 개인적 일탈 등 그 당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비슷한 경험이나 주변

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죠.

김영문 저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는 꼭 시골에 내려가야 됐으니까 내려갈 때 보면 그런 애가 있습니다. 전태일처럼 표를 안 끊어서 의자 밑으로 숨어야 되는... 저는 그걸 열차 안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게 많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정말 전태일처럼 돈이 없어서 무임으로 탔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숨는 거죠. 승무원이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 순간을 피하지 못하면 걸려서 매를 맞습니다. 저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광경을 본 것 같습니다.

이수호 예, 비슷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철 68년도에 제가 취직했을 때 8백 원을 받았거든요. 청파동까지 다니는 버스가 평화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때 일반인이 5원을 했는지 그래요. 학생들은 2원인가 했어요. 그래서 종인이랑 둘이 출퇴근할 때 도시락 가방에다 책을 몇 권 넣어서 (웃음) 학생인 척하고 차비를 냈던 게 기억이 나죠.

나중에는 안내양들 이야기가, 청파동에서 평화시장까지 학생도 아닌데 학생인 척하고 다니는 애들 두 명이 있다고. (웃음) 우리 둘이 그리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8백 원을 가지고는 사실 생활이 어렵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수호 학생만 할인을 해주는 거. 나이는 비슷한데 학생이 아니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 그 상황도 참 안 맞지만. (웃음)

이승철 일반인이 5원이었던 것 같고, 학생은 2원인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다녔어요, 안내양들하고 싸움도 하고. (웃음)

임현재 사실 나는 가출에 대한 추억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1년 정도 살았고, 그다음 해에는 머슴으로 갔었죠. 1년 사는 동안 우리 동네 형들이 전부 서울로, 서울로. 자고 일어나면 누가 가고, 누가 가고, 다 단뽕짐을 짰어요. 그때 단뽕짐을 짰다는 유행가도 있었죠. 그럴 정도였으니,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장남이니까 가면 안 된다. 선산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갈 수도 없구나' 이런 신세를 한탄했던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평화시장 취직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러 다녔어요. 막노동판에서도 일했고, 하여간 여러 일을 했어요. 며칠 일하면 일하기 싫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농땡이를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는 어른이고 가장이고 책임이 있는데 당신은 일을 안 하면서 내가 한두 번 빠지거나 하면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서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에이씨 집을 떠나겠어, 나가겠어' 하고 단뽕짐을 짰 거예요.

그때 몇백 원 주면 번쩍번쩍한 구두 하나 샀으니까 염천교에 가서 구두 하나 사 신고, 집에서 입던 옷 중에 제일 깨끗한 거 하나 차려입고 그리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지. 대전쯤 가면 '내 몸 하나 어디 감출 데는 있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대전에서 내렸어. 그해 여름 되기 전에 대전에 갔다가 추석 때까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죠. 고물상, 거기 가면 옛장수들이 있어요. 거기 아무 데나 받아주거든. 그전에 내가 건넌마을 친구네 고물상에서 일도 하고, 고물장사도 한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거기를 갔었지.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거길 갔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야. 돈도, 장사도 되지 않고. 벌어야 다 써버리고.

그래서 추석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그래도 집에 가야 돈이 모이든지 어 찌든지 하지, 여기 있어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추석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 한 병을 톡 사서 들어가 한잔 따라주면서 넘죽 절했더니, 야단을 안 치더라고. 그 뒤로는 간섭도 안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수호 가출 한 번 하시고?

임현재 네.

이수호 아까 주제와도 상관이 있긴 한데, 다들 시골에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서울, 평화시장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시골에서 서울로 오게 되는 아주 직접적 계기와 과정, 이것만 좀. 다들 구체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것만 한번 짚막짚막하게. 종인 씨부터?

최종인 조금 전에 (웃음) 저 언저리 얘기했듯이 그와 동일하고요. 집안이 어려워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먹고사는 것은 그런대로 살았어요. 집에서 학교를 보낼 수 있었지만 사실 부모가 무지해서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영암에서 목포로 가 3년간 남의 집 생활을 한 거고요. 그걸 점원이라고 했어요. 요즘 이야기하면 판매사원.

그곳에서 많은 걸 느꼈는데 사장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3년 있다가 서울로 와요. 재단사인 친구가 평화시장에 있었어요. 친구이고 동창이지만 나보다 두 살 더 먹었어요. 와서 보니까 그 애가 일찍 올라와서 평화시장 통인상가 큰 공장에서 재단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수호 두 살 많은?

최종인 네, 올라와서 취직자리 알아보니까 재단보조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먹고 잘 데가 없잖아요. 이승철이 형수가 청파동에 살았는데 판자촌, 판자촌 아닌 고급 판자촌이었을 거야. 말하자면 주택인데 이층에 다락을 낸 거죠. 그 다락에서 거주를 하는 데에 불만이 없었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나 전라도 같은 시골에서 온 애들은 다 이런 데서 자는거보다 생각하고, 어린 나이에 별 불만 없이 열심히 다녔죠.

그게 나의 가출이죠. 가출이긴 한데 ‘내가 돈을 벌어서 집에다 보태주겠다’ 이런 가출은 아녜요. 나 혼자 몸뚱아리 아무 데나 굴러다니면서 그때 그때 세월을 보내며 먹고사는 가출인 거죠. 그래서 월급 받아도 저축한 게 없어요. 월급 받으면 그대로 다 써버려. 한 달 치 그대로 써버리고 다시 일을 해서 써버리고. 저축한 거 없이 집에도 도와준 거 없고. 시골에서 올라오고부터 그런 생활들을 해왔죠.

평화시장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3천 개의 사업주랑 공장이 있어요. 3천 개 사업장에서 이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쉬워요. 이 사업장에서 목 잘려도 다음 사업장에서 모집하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소개로 또 연결해주고. 그래서 첫 사업장에, 아까 이승철이 내 밑에 있었다고 하는데 같은 동급으로 있었어요. 나는 1년 있다가 그 사업장에서 나오죠.

이승철 종인이가 나가고 근무하던 중 공장이 망했어요.

최종인 이승철은 그 공장에 있고, 나는 나와서 다른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품목이 다른 공장이야. 전에는 바지를 만들면 이쪽은 잠바를 만드어요. 들어가서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재워주면 여기 들어와 있겠다’ 그랬는데, 공장 사촌조카하고 공장 방에서 자게 됐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장에 스펀지, 솜 탄 것. 그 속에 들어가 자다 보니 겨울에는 축농증을 많이 앓아. 항상 감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은 축농증 앓은 코 올림 같은 멍멍한 말이 나왔어요. 너무 추운데서 자다 보니 감기를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감기에 대한 기억은, 미싱사들이 나를 이쁘게 봤는지 약을 사다주는 거예요, 감기약을. (웃음)

이승철 너무 재미없으니까 종인이 이야기 하나만 여담으로 할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하면, 퇴계로 쪽으로 가면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숲이 있어요. 그때 월급을 3천 원 받는데 앙골라 티셔츠 3천 6백 원짜리를 사다 입어요. 3천 원 받는 사람이 3천 6백 원짜리 앙골라 티셔츠를. (웃음) 옛날에 배우들이 입는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웃음) 그런데 그걸 입고서 시골 내려갔는데 엄마가 따뜻한 물에 빨아서 바로 버렸다는 얘기. (웃음) 나는 종인이 이야기하면 늘 그 이야기해. 그렇게 멋있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가정 형편은 그렇고. 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62년에 졸업했거든요. 어려운 집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 동안은 서당도 다니고 강의록도 보고 그러면서 시간 나면 산에 가서 나무나 해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우리 아버지는 나무하러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 나무하는 건 나하고 어머니하고 다 다닌 것 같아. (웃음) 아주 망태로 가져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하튼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 시골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다 서울 가서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기를 바랐어. 그러니까 으레 나도 가야 되겠다 생각했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4년도 그때 서울에 왔는데 기사식당에서 차 청소하는 일을 했어.

이수호 그러니까 돈 벌러 올라왔네.

이승철 예, 돈 벌러 올라왔는데 아팠어요.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내려가고, 그다음 66년도에 다시 올라와서 광장시장 콩비지백반집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배달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손가락이 붓고 아파서 또 내려가게 되니까, 아버지가 “너는 서울 가서 살 수 없는 사람이니 농사나 배워라” 했지. 그리하여 여기서 농사짓고 살아야겠다면서 도지를 했던 게 그때 여름이에요. 나는 제일 힘든 일이 모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심기에 18일 동안을 연속으로 계속 다녔어. 그리고 남은 시간은 길거리 풀을 베서 가져다가 퇴비를 만들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님한테는 부탁 못 하고 인쇄소에 있는 친구, 그 친구한테 갔다가 평화시장에 오게 된 거였죠. 그러다가 종인이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됐죠. 둘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학생인 척했던 경우도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수호 다들 과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집에는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받은 가출. 우리 임현재 선생님은 가족이 다 서울로 올라왔고요.

어떻든 그 당시 시대적 상황들.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운 환경들, 주변에서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측은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태일이 가장 심했고, 나보다 더 힘든 여공이나 어려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비슷한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거나 했던 이런 구체적인 체험 또는 사례는 없을까요.

최종인 그때는 나 살기가 힘들어서. (웃음)

이승철 제 경우에는, 제가 다른 공장에서 일했을 때인데 60명이 넘게 일하는 제일 큰 공장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게 됐는데, 공장장하고 나하고 둘이 10시에 일이 끝나면 밥 먹고 바지 다리는 걸 한 세 시간 해요. 그러면 새벽 1시나 2시가 돼요. 겨울 어느 날에 시다들이 퇴근했다 두 명이 다시 왔어요. 왜 왔냐고 하니깐 지금 밖에 깡패들이 쫓아 왔는데 자기들을 집에 못 가게 잡아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때 나는 힘도 없으면서 성질은 아주 급했어요. 그런데 그때 옷을 누비는 스펀지를 높이 세워놓고 자르는 칼이 있었어요. 칼이 길어. 내가 그걸 가지고 쫓아가서 이 새끼들 죽인다고 마구 설치니까 그놈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다음 날부터 문제가 된 거야. 이놈들이 몽땅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장이 당분간 여기서 자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공장장 누나 집에서 자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들에게 해코지하는 깡패 같은 애들을 내가 한 번 막았더니 그걸로 동네 공장에서 점수를 땀어. 나보다 한두 살 더 먹은 미싱 타는 애가 있었는데 재단보조인 나를 아주 무시했었거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나를 아주 무서워했지. (웃음) 그리고 개하고 아주 편안해진 부분도 있었죠.

이수호 의협심이 대단했네.

이승철 아, 싸움은 할 줄 모르고. (웃음)

이수호 몸은 그렇게 안 커보이는데 (웃음) 깡다구가 그냥.

이승철 그러니까 그때는 56kg밖에 안 나갔었는데, 그거 아주 확. (웃음)

이수호 한 성질 하는 건 다 비슷하죠? 지금 보니까.

임현재 진짜 깡패는 체격이 크지 않아. (웃음)

김영문 저는 키도 작았고, 몸도 약했잖아요. 50kg도 안 나갔죠. 49kg일 때 군대를 갔으니까 잘못하면 금방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배운 거예요. 할 수 없이 태권도를 배운 거죠. (웃음) 이것으로라도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운동을 했어요.

한양태권도라고 옛날 서울운동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 10시부터 운동을 하면 끝나는 시간이 딱 11시예요. 그러면 동대문까지 빨리 뛰어서 홍제동 가는 버스를 타야 해요. 한번은 진짜 그날따라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뛰어 갔어. 어떤 사람이 우리 관장님같이 키가 컸나 봐. 내가 막 뛰어갔잖아요. 혀가 나왔을 거 아냐. 부딪히니까 그걸 탁 쳐버린 거 아냐. 그러다가 제 혀가 나간 적이 있었다니까요. 물어버린 거지.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최종인 성격들 이야기하니까, 우리 친구 중에 신진철이라고 있어요. 노조 간부로 조직부장이었어. 개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친구들에게까지 소문이 난 사람이고.

이수호 영문 씨는?

이승철 아니 영문이는 아니고. 신진철이.

최종인 이승철이는 대단하게 깡깡한 사람이야. 깡깡하고 깡다구 있고 영리하고 어디 누구 잘못된 거 있으면 직선적이야. 잘못된 꼴을 못 보는 거야.

이승철 왜 갑자기 그 얘기로 들어가? (웃음) 그거 하지 마. (웃음)

최종인 그리고 임현재는 옛날 말로 장비야. 가만히 있으면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나는 한번 성질나면 앞이 안 보여요. 내가 아예 죽어버려야 해. 성이 난 내 자신이 죽어버려야 해결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친구들이 나를 못 이겨요.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웃음) 이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영리하고 똑똑한데 나를 못 이기죠. 그 정도로 깡다구가 나름대로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임현재 종인이 생각에 우리가 못 이겼다고 하는데 아니고, 우리는 역할을 맡겨야 하니까 누군가 하나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키운 건데, 사실은 그런 건데. (웃음)

이승철 착각하고 있잖아. (웃음)

김영문 받들어 준 거지. 어떻게 보면. (웃음)

5. 배움의 열망

이수호 이어나저러나 다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한이 맺힌 이야기죠. 평전을 보면 전태일은 자기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불과 1년도 안 되는 청옥공민학교에서 배우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표현대로 ‘그들과 그들로 옮겨 다니던 삶’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내일의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밥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평전에서도 거의 유일한 안식처로 표현하고 있고. 그 부분

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때 다른 사람들도 배움에 대한 갈망이 아주 심했죠. 공부를 시키려고 소도 팔고 하는 집도 있었고. 심지어 남자들 뒷바라지로 여동생들이 공장 다니면서 오빠 공부시키는 사례들 등등. 그 당시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자기 체험담. 초등학교 다닐 때, 또는 초등학교를 관두고 한 여러 생각들.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학교 분위기라든지 교사들의 태도라든지, 또 남학생 여학생과의 관계 등등.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죠. 일단 승철 씨, 공부를 잘했으니까. (웃음)

이승철 뭘. (웃음) 하여튼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솔직하게 그 시절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생활과 지금 내 생활을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픈 과거를 생각해 보고 싶진 않는데, 여하튼 중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같은 반 동창들이 나한테 엄청 성원을 많이 보냈다고 할까, 아니면 부러워했다고 할까. 그랬는데 불과 석 달 앞두고 딱 못 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어리긴 했지만 정말 슬펐죠. 그래도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광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숙을 하든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든 그럴 형편인데. 그래서 못 가게 된 거니까요.

그다음으로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그때 강의록을 공부했었는데 그것만 했을 뿐이지 어떻게 해서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그걸 전혀 몰랐던 거야. 그 당시에 검정고시라는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수호 검정고시 제도는 있었어요.

이승철 아! 그때? 너무 시골이라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형님이 사서 보내줬었거든요. “네가 못 간다 하니까 그럼 이걸로라도 공부를 해봐라”라며 그렇게 보내주었던 건데. 그걸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한 것이 있었겠죠.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어 발음이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여서 그때 그거나마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그 후에도 많이 해본 적 있죠.

김영문 승철이가 그걸 잘했으면 검정고시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그런데 시간도 없었고.

이승철 아니 그런 건 전혀 잘 몰랐으니까.

임현재 제도를 정확히 몰랐으니까.

이승철 형님은 그걸 중학교 과정이라고 보내주기만 해서 공부만 했을 뿐이고.

임현재 승철이 같은 경우에 실은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마쳤다고 하면, 그 뒤로 좀 더 공부의 필요를 느꼈을 때 대학까지라도 충분히 자기가 할 수가 있었겠죠.

이수호 광주에서 최고 일류 학교를.

이승철 어찌 되었든 그 시절 생각은 별로 안 하죠.

이수호 그런데 지금 후회하거나?

이승철 그러니까 그때 못 했던 걸 후회하고요. 71년 노조 초창기 때 겨울에, 내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대학원처럼 공부하는 과정에 다녔었거든요. 그때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밤 야간 조사하고, 일요일이면 휴일 조사하고 해서 시간이란 게 없었죠. 그래서 나는 힘들었지.

그때 양승조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걸 보고서 그때는 이미 늦었다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당시에 중학교 과정을 마무리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제도를 전부 몰랐다는 거예요.

임현재 양승조 때문에 좋지 않았던 거는, 승철이도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공부할 시간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별로 나쁘게 보지 않았을 텐데요. 책 끼고 다니면서 학생입네 하는, 좀 건방진 모습이라고나 할까. 성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야, 저렇게 해서 일에 지장 주고 그러면 되겠어. 차라리 다니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똑같은 입장인데 종인이 같은 경우는, 그때 승철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군대를 면제받았지만 애(최종인)는 방위소집 대상자였어요.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밤에 근무를 했어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했거든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비라고 부르면서 (웃음) 우리에게 지도자로 추대를 받은 거죠. 실은.

이수호 역할들이 유비, 장비, 조조. (웃음)

이승철 조조 아니라니까. (웃음)

이수호 조조가 지금 최고예요. (웃음)

임현재 조조 형. (웃음)

김영문 저 같은 경우는 71년, 태일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군대를 가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하고 1년도 제대로 못 하고 군대 입대한 상황이었죠. 군대 가서 공부를 못 한 것 때문에 참 안 좋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김해공병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6주간 마치고. 그때 71년도 12월 5일인가 공병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던 시기였는데, 밤에 진짜 완전히 팬티 바람이었는데 물을 끼얹어버리더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그 뭐. 유신,

이수호 10월 유신.

김영문 그걸 시행하려고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시선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12시 됐는데 그냥 일어나게 해서 밖으로 집합을 하라고 하더니 찬물로 그냥 콧.

이수호 겨울에?

김영문 예. 거기서 교육을 받고 특명이 어디로 나왔냐면 공수특전대로 나와요. 부평 공수특전대로 갔어요. 그런데 공수부대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선임하사를 찾아갔어요. “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저 사회에서 운동도 했어요.” 쪽 보니까 아침마다 한 시간씩 운동,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를 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 여기 있겠다. 그리고 힘든 교육도 다 받겠다”고

하니 딱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영어 테스트를.

이수호 영어 테스트? (웃음)

김영문 그런데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육군부대로 넘어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글씨 연습도 열심히 했고. 남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글씨라도 잘 쓰자고, (웃음) 그렇게 해서 형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부를 안 시켜서 이런 억울함을 느끼게 하냐’는 배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실 있더라고요.

우리들이야 다 알지만 사회에 나와서 40대 중에, 그때 만난 사람들하고 교육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웃음)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일도 있었던 것도 같아요.

최종인 저는 교육, 못 배운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해보지도 않고 전혀 기죽지도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못 배운 건 내가 못 배웠으니까 못 배운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되고, 이론적인 토론할 때도 안 나타나면 되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 된다, 난 못 배웠다고 후회해 본 적도 없고. 평생 부모를 원망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노조 활동하면서는 ‘아! 조금 더 배웠으면 내가 열심히 더할 수 있는데’라는 마음. 그러면 못 배웠으니까 배운 다른 사람 머리 데려다가 쓰면 되지 않느냐, 배운 사람들. 그래서 항상 노조 할 때 지도위원을 모시고 있었던 거고. 내가 안 왔으면 그 사람들 필요 없고 더 잘됐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도위원이란 사람들을 항상 옆에 끼고. 못 배웠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신 배우고. 그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맞다 하면 그 후로는 의견대로 밀고 나가고 그런 거죠. 배우지 못했다는 후회는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평화대학 출신이다” 그

러거든요.

이수호 평화대학?

최종인 평화시장, 사회에서 이만큼 좋은 대학이 어디 있냐. 여러 어려운 환경과 투쟁의 본거지. 평화대학 출신들아, 어디 가서 끌리지 마라. 나는 절대 안 끌린다. 나는 잘난 것도 없지만 어디 가서 끌리고 살고 싶지도 않다. 배운 자리에 부르면, 나가면 나가고 못 나가면 못 나가는 거지. 우리 평화대학 출신들은 대학교수들보다 낫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노조 활동하면서도 국방의무에 방위를 받았어요.

이수호 말씀하세요.

최종인 방위를 받았는데 2년간이에요. 시간제로 받거든요. 오전 일 끝나고 저녁 10시부터 창동파출소 근무를 해요, 집이 거기니까. 창동파출소 근무를 하는데 나 때문에 동료들이 노상 기합을 받아요. 낮에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노상 졸거든요. 보초 서다가 조니까, 동료들이 기합을 받아서 '어디까지 갔다 와!' 그러면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방위를 다 마쳤습니다.

이수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다 같이 전태일을 만나고 노동운동을 하게 되고. 청계피복노조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신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 다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좀 더 배우고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다들 야간학교나 검정고시 학원도 다녔을 거고. 그때는 야학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교회 같은 데서 고등학교 과정도 가르쳐주고, 검정고시 시험도 도와

주었는데 혹시 전태일 만나면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다, 이런 생각은?

최종인 배우지 못한 후회는 해본 적이 없고요. 놓쳤다는 생각도 안 해요. 먹고살기 위한 환경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요. 이승철이는 그때도 시골에서 소문나 있었어요. 공부 잘한다고. 시골에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60년 알고 지내는 친구니까. 이런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뒷바라지를 못 해주니까 안타깝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니까. 노조 활동할 때도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누구든 축이 빠르게 착착착 돌아야 어떤 대안이나 제시를 빨리 해준단 말야.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안 맞을 때도 있겠죠. 그래도 그런 동료애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 우리들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수호 승철 씨는 혹시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이승철 71년도쯤에 장기표 씨가 서울대 문리대생 4학년인 이성구라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어요. 그 양반하고 봄부터 공부를 한 4~5개월 했는데 가을인가 그쯤 되어 나한테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서 공부를 더 못 하게 됐다고 하니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김문수를 만난 거예요. 김문수하고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 나는 중학교 과정은 무조건 통과라고 생각했는지 고등학교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김문수가 그러는 거예요. 평화시장에는 노동운동 할 사람이 많으니까 형은 대학교 가서 학생운동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때 그 말이 나한테 약간 솔깃했어.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계속했었어요.

지금 나는 잘 모르겠어. 그때 김문수가 고려대 농과인가 농대인가 제일 약하니까 거기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김문수가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도망가면서 공부를 더 못 하게 됐어요. 이것은 친구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때 만약에 민청학련 사건 없이 문수와 계속 공부했으면 혹시 그쪽으로 갔었을 수도 있다, 뭐.

이수호 고대를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이승철 농대인지 농과인지 거기는 뭐.

이수호 과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승철 자기가 보기에 여기는 운동할 사람이 많다는 거야, 평화 시장에는.

이수호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놓친 거네요.

임현재 그래서 나쁜 놈이 안 된 거죠. (웃음) 김문수나 장기표나 이런 사람들에게 배워서야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

김영문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더.

이승철 난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웃음)

임현재 거기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네처럼 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계속했어 봐. 그 사람들 따라갔지. (웃음)

이승철 80년대 몇 년도인가에 민중당 창당했었잖아요. 그때 장기표 형님이 나한테 중구에 국회의원 나가라고 얼마나 밀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허냐 그러니까 “학생들 500명을 붙여 줄까”라며 그렇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때도 쉽게 말하면 아이고 국졸밖에 안 되고 공식적으로 노동운동 조금 했다고 그게 되냐 절대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내 처지를 아는 사람이야. (웃음) 자네들이 걱정 안 해도 돼. (웃음)

임현재 아니 공부를 했다면 말이야. 그때 대학, 고려대를 갔다면 그랬을 거란 거지.

김영문 바뀌었을 것이다 이거지.

이승철 알았어. (웃음) 아주 잘했어 내가. (웃음)

임현재 그런데 나는 공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어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 사실은 노동운동에서 그래도 청계피복지부가 상당한 명성도 있고, 상급단체로 진급하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방끈 짧은 것 때문에 상급단체의 직책에 대해서 어떤 욕심도 내지 않았지. 퇴로가 없었지. 퇴로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 사업에 빠져서 이 친구들은 지금 거부가 됐고. (웃음) 다행이지만 나는 고작 보험설계사밖에 못 됐으니, 이게 참. (웃음)

이수호 그래도 지금 제일 건강하잖아. (웃음) 어쨌든 전태일은 국졸도 못 했으니까. 하지만 배움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남다른 생각과 느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철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할까요. 한 2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국졸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쪽 중구에도 어떤 노인회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 말에 의하면 국졸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분이 나를 무지하게 좋아함에도 나는 가까이할 수 없어. 그분이 맨날 내 앞에서 비례대표로 구의원 나온 김영선이기도 국졸, 누구도 국졸, 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인 양반한테 “아유 국졸이라 그렇게 능력이 없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조영훈 의장도 국졸이고. 그런데 나한테는 내가 민주화운동도 했으니까 나를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놓고 보는 거 같아. 어쨌든 그 양반 가까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 국졸이라는 건 엄청 불이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최종인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돼. (웃음)

임현재 그분한테 한번 고백을 해. 능력이 별로 없는 국졸이라고. (웃음)

김영문 거기 뭐,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한번 하지 그랬어.

6. 모순에 눈뜨다

이수호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학력 위주 사회인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최근에 조국 사태도 교육 불평등 등과 연관된 게 많은데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평전의 첫 내용은 어린 전태일이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양화점 앞에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기에 전부가 다 행복한 얼굴들일까?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하고, 항상 괴로운 마음과 몸, 그리고 떨어진 신발에 남이 입다 버린 계절에 맞지 않는 헌옷, 때 묻지 않은 옷을 언제 입어볼 수 있을까. 때 묻은 옷을 나는 입고 살아야 할까.’

그 이후에 다방에서 우산을 팔다가 실랑이를 벌이던 전태일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지예요. 댁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도도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계속 도도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당시 전태일은 악착같이 자신을 거부하는 ‘부한 환경’을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계급 문제인데 전태일은 왜 부한 사람은 늘 부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해야 되는가, 이런 계급에 대한 모순을 어렵פות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전태일이 노동운동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전태일과 함께하기 이전에 어렵פות이나마 이른바 계급에 대한 현실, 모순들을 느끼고 있었는지요.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계급이란 건 양반과 상놈처럼, 상놈은 아무리 잘해도 양반이 될 수 없죠. 아예 족보가 다르니까. 예컨대 하사관은 아무리 잘해도 상사, 특무상사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잖

아요. 그런데 위관급 되면 장군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넘을 수 없는 차이, 이런 것이 계급이죠. 전태일은 잘사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도 계급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어렵듯이 느끼면서 이걸 어떡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가난한 사람과 부자 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계급의식을 느끼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전태일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지. 이런 점들을 얘기해 주시죠.

이승철 저는 태일이를 만나서 삼동회를 할 때까지도 철저하게 나 개인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든지 기술을 배워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골에 보내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였죠. 전태일을 만나고, 그가 죽었을 때도 ‘하, 우리가 회장을 시켜서 책임감으로 죽었나 보다’ 했는데 장례식 끝나고 태일이네 집에 가니 제일 먼저 어머니가 나한테 쪽 편지를 줬어요. ‘내(전태일)가 눈을 하나 기증할 테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 그러면 모범적인 기업을 만들겠다’고 써 있는 그 편지를 읽은 거야.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태일이네 집에 들어갔을 때, 한 50채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가 남산동에 붙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만들어진 동네죠. 그러니까 뭐 아무 데나 지었죠. 집 뒤에 바로 화장실이 있었어요. 3개인가 4개 정도 재래식이죠. 우리가 갔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변 본 게 얼어서 앉으면 항문을 찌를 정도로 아주 열악한 집이었어. 그리고 물이 내려가는 곳에 다리로 놓은 판자가 관이었어. 사람 죽으면 넣는 관, 관이 그 동네에 많이 있었거든요. 다리가 그것이었어. 저도 시골에서 못살았지만 그렇게 험한 집에서는 안 살았거든요.

처음엔 ‘야. 이렇게 못사는 애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저 집이나 살 생각을 하지. 남을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그

일기를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지. 애는 구구절절 평화시장의 애들을 위해서였어요. 삼동회 할 때도 개가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주일학교 애들 선생이래요. 그런데 일기에 ‘왜 어린 동심의 애들은 주일이 없나’라고 쓰여 있는데, 주에 한 번 쉬는 휴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요일이 아니라 개는 주휴일이라고 썼거든. 그걸 보며 절절하게 느껴졌고 내 자신도 충격을 받아서 노동조합을 하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나 혼자 잘살면 된다 생각했죠. 노동조합을 시작하고 한동안 대학생들을 만나서 토론하면서 장 형을 만나게 됐고, 이때부터는 잘 산다는 것은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김문수를 만나 공부도 하고, 노동 교육도 많이 받고 세미나도 많이 하면서 ‘아, 나도 평등하게 사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은 되어야겠다’고 이렇게 3단계로 차츰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수호 의식이?

이승철 네.

김영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태일이 일기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죠. 자기가 그간에 봤던 사람과 사물들 환경 등에 대해 그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 어린 동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것을 자기는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걸 친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친구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임을 해도 열두 명, 열한 명 그렇게 줄어들면서 대여섯 명 나오기도 하고요. 전태일의 생각에 비해 친구들이 너무 부족했다고 봐요. 바보회가 더 강하게 밀어주며 끌고 갔어야 했는데 못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일기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눈을 기증해야 되겠다라든지, 때로는 진짜 한두 명은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 못해줬다 생각도 들거든요. 일기를 보면 그래서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수호 예. 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격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식이 상당히 크죠.

최종인 그 의식이라는 게 부자들은 원래 부자인가 보다, 저는 원래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이수호 그게 생각이예요. ‘원래 부자’라는 그런 생각도 의식이고.

최종인 나는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원래 부자고 평화시장과 제품업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이북 사람들을 보며 아! 이북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하고 공장을 세우고 대단하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별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일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랬죠.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생각은 태일이라고 좀 다른 사고방식이예요. 부자들은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의식이 생겨서 노동운동을 하는데 태일이 죽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친구들과 의논을 하다 보니 ‘아 태일이는 정의롭게 살았구나. 정의와 의리가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됐죠.

제일 기억에 남는 태일이 모습인데요. 태일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냐면, 내가 공장, 중부시장에서 일을 할 때 자꾸 여러 집을 옮겨 다녔어. 돌팔이 재단사니까. 정식적인 기술을 가지고 못 들어가요. 웬만한 재단사가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데만 돌아다녀요.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때까지는 전태일에 대해 잘 몰랐을 때예요. 어느 날 바바리코트를 입고 탁 나타난 거예요. ‘아 참 멋진 놈이다’ 생각했죠. 그는 행동과 걸음이 빨라요. 걸음이 빨라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처럼 누비고 다니는 애예요. 그리고 나보고 당구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 스포츠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아 그런가 보다’ 했지. 부자들 의식은 뭐, 저 사람들 평생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 했죠. 불만 같은 거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이수호 당시 모두가 다 어려운데 이렇게 고생하고 하면 결국 우리도 잘살 수 있다. 또 우리 사회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잘사는 기회가 열려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임현재 선생님께서는 혹시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니면.

임현재 처음에는 평화시장에서 사장들이 소규모로도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나중에 전태일이 주장하던 이야기 중에 나이가 어린 소녀들이 일을 하고 나서 사장 맘에 안 든다고 해고당하고 월급 떼이고, 또 당사자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공장을 그만뒀을 때 나머지 월급은 으레 안 주는 그런 나쁜 짓들을 우리가 못치면 바꿔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나도 단체를 만드는 일들을 좋아했으니까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태일이 희생이 됐고. 그 희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었지. 나중에 전태일의 일기를 보면서, 개라고 특별히 많은 걸 배운 것도 아니고 나나 저나 도긴개긴인데 어떻게 해서 개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더 나중에 내가 성당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데, ‘아! 개가 여기서 영향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전태일이 자기 무슨 전도사쯤 되는 것처럼 행동했잖아. 우리 앞에서 늘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설교하는 식으로.

이수호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김대현 오늘 질문들은 그 시대를 겪지 못한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이 만약 그 시기의 전태일 열사에게 직접 물었으면 어떤 게 궁금했을까 하는 질문들을 가상으로 전태일 친구분들에게 대신이라도 듣고 싶어서 만들었던 질문들이고요. 정말 잘 답변을 해주셔서 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다들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한 점은, 당시 어떤 지역 공동체는 집성촌이라서 좀 많이 도와줬던 마을도 있던 것 같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고향에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으셨던 것도 같은데요. 혹시 그런 지역적 차이가 발생한 원인들이 6·25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여서 이념의 대립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지역적 특색이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서울에 올라오신 계기들도 잘 들었는데, 아까 돈을 벌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기 싫어서 올라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서울에 도착했을 때 주로 어디쯤에 정착을 하셨는지요. 가령 영등포라든지 서울 근교 부천, 또는 아까 말씀 주셨던 망우리 이런 곳들로 많이 갔다고 하는데, 그런

동네의 당시의 모습들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보충해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호 지금 작가님 질문과 관련해서?

김영문 그때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신동 꼭대기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고. 답십리, 청량리, 전농동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서울역 쪽에 염천교 라든가. 하여튼 그 높은 곳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냥 지었어요. 달동네식으로 지었죠.

저도 어렸을 때 홍은동에서도 살았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야산 비슷하게 생겼는데 꼭대기에 집들을 지었어요. 처음 올라와서 누나들이 세를 들어 사는 생활이 너무도 어렵게 보였습니다.

임현재 그때 우리 동네 경우는 하천이 메워지고 그 빈터에 서민들이 천막 치고 살았어요. 위로는 산이었어요. 여하튼 아버지께서 지어진 천막을 몇 푼 주고 구입을 했죠. 그때는 저녁이 되면 집을 지어. 그러면 다음 날 오전에 철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때려 부숩니다. 다시 저녁에 또 지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아예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집을 부숩니다. 재료라도 쓸 수 있어야 다시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는 짓고 아침에는 부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그게 자기네 집이 되더라고. 그래서 거래가 오가기도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랬고. 승철이는 형님이 와서 먼저 정착을 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그런 집에서 안 살았죠.

저기 태일이네 창동 집이 어떻게 생겨서 거기로 가게 됐냐면, 처음에 남산동에 사셨잖아. 남산동이 화재로 싹 타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

가 없어서 간 계 공동묘지로 간 거야. 거기 쌍문동 고개 부근.

최종인 공동묘지였어.

김영문 뒤에가 바로 공동묘지예요.

임현재 태일이네 집도 공동묘지였어. 공동묘지니까 조금만 파면 관들이 나온단 말이야. 아직 많이 썩지 않은 것들, 그 관 짝을 가져다가 화장실 판자도 만들고 했던 거지. 태일이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 도 낮에는 부숴버리고 밤에는 다시 와서 짓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다 집을 새로 지을 때마다 태일이 자꾸 놀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 그거 자꾸 왜 집을 키우냐” 물었더니 “어머니 가만히 계셔. 나중에 여기 와서 우리 친구들이 꼭 차게 회의를 해야 하는 곳이니깐 크게 지어야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가 난개발이 된 거였죠.

이승철 그리고 시골에서 못살았던 환경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모르고 그게 팔자려니 했는데요. 나중에 커서 생각하건대 사실 군주제로부터 계급사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학혁명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한국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건데, 그것도 역시 혁명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안 되었죠.

시골에 땅부자들 이런 문제도, 북한에서는 땅을 몰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었는데 한국은 그걸 못 했죠. 쉽게 말하면 동학혁명도 성공했다면 시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제대로 된 혁명을 못 해서 (웃음) 빈부격차라든지 여러 가

지 어려운 상황을 겪은 어린 시절의 태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인 난 할 얘기 없어요. (웃음)

김대현 예. 궁금한 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호 네. 미흡하거나 작가님께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다음 회차에 적절히 배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한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했지만 선생님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태일 열사의 어린 시절과 그 시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더욱 풍부한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주 뒤 다음 회차는, 당시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을 다룬 평전의 2부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전 다 집에 갖고 계시죠?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웃음)

오늘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작가님, 감독님 비롯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태프, 또 참관해 주신 분들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2주 뒤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